

1-2인 가구증가의 소득불평등도와 소득격차에 대한 기여도 분석

임병인^{**}, 김성태^{***}, 정지운^{****}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A Contribution Analysis of the Increase in 1-2 Person Families on the Income Inequality and the Income Gap

Byung-In Lim^{**}, Sung-Tai Kim^{***}, Ji-Un Jung^{****}

Dept. of Economic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Economics, Cheongju University^{***}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요약 본 논문은 1990-2014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로써 소득불평등도 추이를 살피고, 1인 및 2인 가구들이 전체 소득불평등도와 소득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기여도 개념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기여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2인 가구의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3년 이후부터 그 수준이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2인 가구에 비해 더 컸다. 둘째, 1-2인 가구의 소득5분위 배율에 대한 기여도는 2006년 이후 증가하며, 2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의 기여도가 더 컸다. 이상에서 소득불평등도 완화와 소득격차 확대 해소를 위해서 1-2인 가구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주제어 : 1-2인 가구, 가구분화, 소득불평등도, 소득 5분위배율, 소득격차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rends of the income inequality index and the income quintile share ratios, using the Household Survey released by Statistics Korea. We discuss their respective effects on total income inequality and the income disparity, as a contribution concept defined in this paper for 1990-2014 period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tribution of 2-person families to total inequality with the current income or the disposable income becomes bigger, and growth rates have been above 10% since 2003. Second, the contribution of 1-person families to income inequality is greater than that of 2-person families. Policy implication is such that the government had better investigate the 1 or 2 person families in-depth to set up the policy measures for weakening the income inequality.

Key Words : 1-2 Person Families, Household Diversification, Income Inequality, Income Quintile Share Ratio, Deciles Distribution Ratio, Income Gap

* 이 논문은 2015년도 한국연구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일부 보완한 것이며,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되었습니다(NRF-2014S1A3A2044456).

Received 14 October 2015, Revised 15 November 2015

Accepted 20 December 2015

Corresponding Author: Ji Un Jung(KRIVET)

Email: jiunjung@krivet.re.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우리나라는 최근 1-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외에 2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48.15%로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2인 가구 비중이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15년 50% 초과, 2035년 7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1-2인 가구가 최근에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주요 원인으로서는 이혼 증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 약화로 인한 전통적인 대가족 구조 와해로 증가된 노인 가구 또는 빈 등지 가구의 증가, 미혼·만혼·비혼 등으로 인한 청년단독 가구의 증가 등이 거론된다(통계청 보도자료, 2012. 12. 11,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1인 가구 현황 및 특성”; 2013. 9. 30. “2013 고령자통계” 보도자료; 2013. 11. 18,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및 변화분석” 보도자료 참조).

문제는 1-2인 가구의 변화는 가구 기준 소득으로 불평등도를 측정할 때, 가구 기준 소득을 변화시켜 불평등도 값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즉, 18세 이후에 취업 등으로 인한 1인 가구 분화, 자녀들의 취업, 취학, 혼인 등으로 인한 빈 등지가구 증가와 유사한 노년기의 1인 가구 증가 가능성, 혼인으로 인한 2인 가구의 생성, 비혼(또는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1인 가구의 생성 등은 가구 기준 소득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인 가구로부터 어떤 사유로 소득을 벌고 있던 1인이 별도로 1인 가구를 형성하면, 해당 가구의 소득은 변하지 않지만 나머지 1인 가구의 소득이 갑자기 급락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혼 또는 사별을 통해서 1인 또는 2인 가구가 될 경우, 해당가구의 소득은 상황에 따라 아예 없거나 대폭 축소되고 소득을 벌어들인 가구 주로만 구성된 가구의 소득은 그대로 유지되는 등의 변화가 생긴다.

본 논문은 이상과 같은 1, 2인 가구의 분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 중에서 소득분포에 초점을 맞추어 첫째, 「가계동향조사」 자료로써 2006년 이전에 발표된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 추이를 추정하고, 둘째, 2006년 이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인 가구의 증가가 전체 소득불평등도(소득 5분위 배율

포함)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제시하며, 셋째, 2인 가구의 급증현상을 반영하여 전체 소득불평등도(소득 5분위 배율 포함) 추정결과를 3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인 뒤 2인 가구를 반영할 경우, 1인 가구 반영할 경우의 소득불평등도(소득 5분위 배율 포함)를 비교하여 그 기여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기존 국내외 연구를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사용 자료와 소득불평등도인 지니계수 측정방법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1-2인 가구의 기여도를 도출하는 방법과 추정결과에 대하여 상술한다. 동일한 작업을 소득5분위배율에도 적용하고, 소득 기준은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결과를 논의한다. 제4장에서는 분석결과들을 요약·정리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2. 기존 연구

본 연구와 유사하게 가구 구조의 변화와 소득불평등에 대한 기존 해외 연구로는 Martin[1], Massey[2], Western, Bloome and Percheski[3], Brandolini and D'Alessio[4], Piechl, Pestel and Schneider[5], Burtless [6] 등이 있다. 이들 연구 중 Martin[1], Massey[2], Western, Bloome and Percheski[3] 등은 가구구성의 변화 중 소규모화가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중요한 기제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Brandolini and D'Alessio[4]는 이탈리아의 1977년부터 1995년까지 자료를 활용하여, Piechl, Pestel and Schneider[5]는 독일의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크기의 감소가 소득 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냈다. Burtless[6]는 1979년부터 1996년까지의 미국에서의 소득 불평등 증가에 가구구조의 변화, 특히 여성 1인 가족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냈다.

Martin[1]은 1976년부터 2000년까지의 CPS(Current Population Survey)조사를 근거로, 가족구조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을 41% 정도 설명하며, 가구 크기가 작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악화됨을 밝혀냈다. Western et al.[3]은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분배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가구구조의 변화의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증명했고 한 부모 가정이 소득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다는 점을 밝혀냈다.

한편, 국내 연구에서는 가구 구성의 변화나 소가족화와 불평등을 연계한 연구는 많지 않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자녀가 없는 성인 2~3명으로 구성된 소규모가구의 증가세는 소득불평등도를 확대시키고, 더불어 노인 가구, 모자 가구, 한세대 가구의 증가가 전체 도시가구의 소득 불평등을 확대시킨다는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7,8]. 반정호[7]는 가구유형을 노인, 모자, 맞벌이, 그리고 일반가구로 구분하고, 전체 소득불평등에 대한 기여율을 추정하였고, 김문길[8]은 가중치 재조정방법과 엔트로피 분해방법을 활용하여 가구유형별 구성비의 변화가 소득불평등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들 두 연구는 공통적으로 2인 이상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1인 가구를 제외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외에도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이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킬까를 보인 성명재·박기백[9]이 있다. 이들은 1982~2008년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및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SCV(square coefficient of variation)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1982~94년 기간에는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은 0에 가까운 반면, 1994~2008년 기간에는 인구구조와 소득분포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은 각각 14.9%와 85.1%로 추정되었다. 또한 미래 전망을 위해 수행한 모의실험 결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SCV는 2018년의 경우 2008년 대비 7.5%, 2050년에는 27.5%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3. 1-2인 가구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기여도 분석

3.1 사용자료 및 불평등도 측정지수

본 연구에서는 1990~2014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한다. 동 조사의 소득유형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재산소득, 이전소득(이상을 경상소득이라고 함)과 그밖에 경조소득, 퇴직소득 등의 비경상소득 등이 있다. 또한 경상소득에서 소득세와 사회

보험료 지출액을 차감한 가처분소득을 계산하여 소득불평등도의 기준소득의 하나로 계산하였는데, 이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납부액의 재분배효과를 보기 위함이다.

소득불평등도 지수는 지니계수를 이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식 (1)과 같은 수식으로 계산한다.

$$G = \frac{2}{n^2 \mu} \sum_i \left(i - \frac{n+1}{2} \right) Y_i p_i \quad (1)$$

단, μ : 전체소득의 산술평균, i : 소득 크기별 순위(rank), n : 가구 수, Y_i : 소득, p_i : 전체소득 기준 i 가구(또는 개인)의 표본추출가중치.

3.2 전체 소득불평등도 추이와 1-2인 가구의 기여도 분석

먼저 경상소득으로 측정된 전체 가구(이는 2인 이상 가구를 의미) 기준 지니계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Table 1> 참조), 1990-93년은 하락 추세를 보인 후 점증하다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급증했다. 2000년 지니계수는 이전에 비해 떨어졌으나, 다시 2008년까지 계속 증가하였고 이후 다시 하락 추세로 반전되었다. 또한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경상소득 기준 지니계수에 비하여 낮아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일정 부분 재분배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런 해석이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제 본 연구의 목적인 1-2인 가구의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본적으로 소득불평등도를 결정짓는 여러 특성변수의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요인분해와 같은 기법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추출해낼 수 있다[8].

지니계수 요인분해기법에 따르면, 본 연구의 주제인 가구원 수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여기서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등)이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기여도(일반적으로 이를 상대적 기여도라고 함)를 분리해낼 수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를 사용한 집단별 요인분해기법은 그 특성상 집단 간 불평등도와 집단 내 불평등도, 잔차(residual)로 분해하고 있다.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차가 상당히 커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하는 가구원 수별 기여도,

1) 이와 유사한 요인분해 관련 연구로는 현진권·임병인[10,11], 임병인[12,13] 등이 있다. 반면에 1인 가구를 포함한 연구는 정지운·임병인·김주현[14]가 있다.

(Table 1) Yearly Trends of Gini Coefficients by Family Members

Year	Number of Household Members (Current Incom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Disposable Income)								
	Total	3-person family	+ 4-person family	+ 5-person and above family (A)	+ 2-person family (B)	+ 1-person family (C)	Total	3-person family	+ 4-person family	+ 5-person and above family (A)	+ 2-person family (B)	+ 1-person family (C)			
													Method 1	Method 2	Method 1
1990	0.280	0.270	0.262	0.270	0.280								0.275		
1991	0.272	0.269	0.253	0.261	0.272								0.268		
1992	0.265	0.263	0.250	0.255	0.265								0.261		
1993	0.271	0.269	0.256	0.258	0.271								0.268		
1994	0.270	0.275	0.255	0.256	0.270								0.266		
1995	0.272	0.276	0.255	0.255	0.272								0.267		
1996	0.278	0.260	0.260	0.260	0.278								0.272		
1997	0.277	0.276	0.258	0.258	0.277	N.A.	N.A.	0.272	0.271	0.254	0.254	0.272	N.A.	N.A.	
1998	0.307	0.308	0.289	0.290	0.307								0.301		
1999	0.311	0.298	0.289	0.291	0.311								0.305		
2000	0.291	0.279	0.270	0.268	0.291								0.284		
2001	0.300	0.301	0.277	0.279	0.300								0.293		
2002	0.303	0.309	0.280	0.279	0.303								0.296		
2003	0.305	0.291	0.272	0.270	0.305								0.299		
2004	0.312	0.295	0.279	0.278	0.312								0.305		
2005	0.317	0.294	0.277	0.278	0.317								0.310		
2006	0.322	0.306	0.284	0.282	0.322	0.363	0.349	0.314	0.298	0.276	0.275	0.314	0.355	0.340	
2007	0.327	0.312	0.289	0.287	0.327	0.370	0.357	0.318	0.302	0.280	0.278	0.318	0.360	0.347	
2008	0.329	0.308	0.291	0.290	0.329	0.379	0.368	0.319	0.299	0.281	0.280	0.319	0.369	0.359	
2009	0.323	0.295	0.282	0.281	0.323	0.379	0.368	0.315	0.288	0.274	0.273	0.315	0.371	0.360	
2010	0.318	0.291	0.276	0.275	0.318	0.376	0.366	0.309	0.284	0.268	0.267	0.309	0.368	0.358	
2011	0.317	0.292	0.271	0.271	0.317	0.375	0.363	0.309	0.284	0.263	0.264	0.309	0.367	0.355	
2012	0.317	0.295	0.271	0.271	0.317	0.378	0.367	0.307	0.286	0.263	0.262	0.307	0.368	0.359	
2013	0.313	0.283	0.263	0.264	0.313	0.376	0.364	0.304	0.275	0.255	0.255	0.304	0.366	0.355	
2014	0.311	0.285	0.263	0.264	0.311	0.378	0.373	0.301	0.276	0.254	0.256	0.301	0.368	0.363	

N.A. denotes Not Available.

특히 1-2인 가구의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를 과소평가하게 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²⁾

본 연구에서는 전술하였듯이 기존의 요인분해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독자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1990년부터 2014년까지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소득불평등도를 계산한 뒤, 4인 가구를 포함시키고, 이후 5인 이상 가구를 포함시켜 소득불평등도를 계산한다(이 값을 기준 지니계수(A)라고 부르고자 함). 이 수치에 2인 가구를 추가로 반영하여 지니계수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2인 가구까지 반영한 지니계수에 1인 가구를 추가하여 지니계수를 다시 계산한다.

기여도 계산은 2인 가구의 경우, 2인 가구 포함 지니계

수가 기준지니계수(A)에 대비하여 얼마나 변했는지에 의해 측정된다. 1인 가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기여도를 계산한다. 첫 번째 방법은 2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3인 이상 가구(이 가구들로 계산한 지니계수가 바로 기준지니계수(A)임)에 1인 가구만을 추가하여 지니계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방법 1).

이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전체 소득분배상태에 얼마나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두 번째 방법은 2인 가구까지 반영한 지니계수(이를 <Table 1>에서 B로 표기)에 1인 가구를 추가하였을 때 계산된 지니계수와 비교하는 것이다(방법 2). 이는 1인 가구만이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추출해낼 수 있다.

이제 전술한 방법의 한 기여도 추정결과들을 논의해 본다 (<Table 2> 참조). 첫째, 2인 가구의 기여도를 보면, 1998년을 비롯한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전체가구 기준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

2) 물론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를 기준으로 낮은 소득에서 높은 소득 순으로 정렬하면 나머지가 0이 되기도 한다[15]. 이는 각 개인 또는 가구의 상대적인 위치가 정확하게 전체 소득 분포상의 위치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할 경우, 소득순서가 집단 간에 중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머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Table 2> Contribution of 1-2 persons Family to Total Inequality Index

Year	Current Income			Disposable Income		
	Contribution of 2-persons Family $\{(B)-(A)/(B)\} \times 100$	Contribution of 1-person Family $\{(C)-(B)/(C)\} \times 100$		Contribution of 2-persons Family $\{(B)-(A)/(B)\} \times 100$	Contribution of 1-persons Family $\{(C)-(B)/(C)\} \times 100$	
		Method 1	Method 2		Method 1	Method 2
1990	3.61			3.63		
1991	3.73			3.73		
1992	3.94			3.91		
1993	4.84			4.88		
1994	4.96			4.93		
1995	5.93			5.90		
1996	6.20			6.24		
1997	6.69			6.65		
1998	5.56			5.58		
1999	6.50			6.54		
2000	7.66			7.74		
2001	6.93			6.86		
2002	8.00			8.00		
2003	11.51			11.56		
2004	10.93			10.98		
2005	12.30			12.48		
2006	12.25	11.41	23.45	12.34	11.57	23.83
2007	12.31	11.63	24.33	12.46	11.88	24.92
2008	12.00	13.25	27.18	12.26	13.59	28.03
2009	13.07	14.83	30.93	13.40	15.13	31.75
2010	13.28	15.47	32.83	13.62	15.85	33.88
2011	14.45	15.43	33.81	14.63	15.77	34.68
2012	14.55	16.12	35.73	14.69	16.51	36.72
2013	15.91	16.61	38.19	16.05	17.04	39.29
2014	15.05	17.70	41.01	15.05	18.14	42.07

N.A. denotes Not Available.

다. 이는 2인 가구들의 소득이 전체 소득불평등도의 소득 분배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의 예상과 부합된다. 이 같은 추세는 소득유형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한편, 2003년 이후 전체 소득불평등도를 10% 이상 증가시킬 정도로 기여도가 이전 연도에 비하여 높았다. 이는 2003년부터 「도시가계조사」가 「가계조사」로 바뀌면서 표본이 달라지면서 농촌지역의 2인 가구가 더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경상소득 기준 1인 가구의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 중 1인 가구만을 추가하여 계산한 기여도(방법 1)는 2006-7년 2년간만 2인 가구의 기여도가 클 뿐, 이후에는 계속 1인 가구의 기여도가 계속 크게 나타났다. 눈에 띄는 결과는 2008년 이후부터는 1인 가구의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가 2인 가구의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1인 가구가 주로 소득이 2인 가구에 비하여 더 낮은 1인 노인가구 등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기여도는 가처분소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Table 2> 참조).

한편, 방법 2에 의한 1인 가구의 기여도는 2인 가구만의 기여도와 방법 1의 기여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눈여겨볼 것은 2인 가구의 기여도 수치와 1인 가구의 방법 1의 기여도 수치 결과의 합이 1인 가구의 방법 2의 수치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다. 결국 1인 가구가 2인 이상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기여도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는 방법 1에 의한 결과 해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Table 2> 참조).

3.3 소득5분위 배율 기준 1-2인 가구의 기여도 분석

지금까지 지니계수로써 1-2인 가구의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 계산결과를 논의해보았다. 같은 논리를 소득5분위 배율에 적용하여 1-2인 가구의 기여 정도를 추출하여 논의해본다. 이와 같은 지표를 이용한 이

<Table 3> Income Quintile Share Ratio Trends by Year and Household Members

Deciles		Household Members					
		3-person family	+ 4-person family	+ 5-person and above family (A)	+ 2-person family (B)	+ 1-person family (C)	
						Method 1	Method 2
Current Income	1990	2.428	2.272	2.368	2.546	N.A.	
	1995	2.488	2.182	2.183	2.464		
	2000	2.484	2.389	2.377	2.807		
	2005	2.847	2.557	2.581	3.463		
	2006	3.037	2.665	2.628	3.552	5.063	4.731
	2007	3.129	2.742	2.697	3.689	5.387	5.100
	2008	3.063	2.760	2.732	3.743	5.811	5.569
	2009	2.900	2.626	2.606	3.667	6.104	5.889
	2010	2.795	2.547	2.535	3.572	6.064	5.050
	2011	2.845	2.473	2.466	3.571	6.062	5.891
	2012	2.881	2.440	2.428	3.550	6.158	6.077
2013	2.653	2.314	2.310	3.486	6.175	6.075	
2014	2.667	2.310	2.322	3.385	6.250	6.568	
Disposable Income	1990	2.465	2.280	2.423	2.626	N.A.	
	1995	2.512	2.227	2.234	2.559		
	2000	2.544	2.400	2.393	2.866		
	2005	2.948	2.591	2.619	3.658		
	2006	3.197	2.718	2.673	3.730	5.341	4.866
	2007	3.084	2.733	2.694	3.825	5.776	5.288
	2008	3.098	2.756	2.737	3.922	6.268	5.840
	2009	2.943	2.657	2.634	3.913	6.867	6.317
	2010	2.842	2.533	2.520	3.683	6.720	6.603
	2011	2.936	2.506	2.515	3.803	6.754	6.409
	2012	2.870	2.449	2.440	3.683	6.474	6.280
2013	2.623	2.290	2.296	3.555	6.450	6.222	
2014	2.884	2.449	2.504	3.668	6.777	7.140	

N.A. denotes Not Available.

유는 1, 2인 가구들은 주로 소득이 낮거나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가구들이 더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지표 역시 지니계수와 일관된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3인 이상 가구(1, 2인 가구 배제)의 소득5분위 배율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1, 2인 가구를 추가로 반영할 경우의 5분위 배율을 경상소득과 처분소득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주지하다시피 5분위 배율은 수치가 클수록 소득격차가 커진다.

이제 소득5분위 배율로써 분석대상기간 동안의 계층간 소득격차 결과들을 분석해본다. 설명의 편의상 분석대상기간을 1990년부터 2005년까지는 5년 단위로 제시하고, 2006년부터는 매년 계산결과를 제시한다(<Table 3> 참조). 첫째, 지니계수와 동일한 방식대로 5인 이상 가구(1-2인 가구 제외)를 경상소득으로 계산한 기준 5분위배율로 정하여 그 결과를 설명해본다(<Table 3> 상단 참조). 2000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2008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08년을 정점으로 2009년부터 하락추세로 반전되었다. 이 같은 반전은 소득격차에 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 같은 추세는 2인 가구를 포함시켜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인 가구를 포함시키면(방법 2) 2008년을 정점으로 한 5분위 배율의 하락추세가 2010년과 2011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방법 1도 동일). 이는 1인 가구가 2인 가구와 달리 소득이 낮은 가구가 많아 소득격차를 더욱 크게 하고 있고, 그 정도가 최근 들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경상소득에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차감한 처분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절대 수준에서 경상소득 기준 수치보다 작아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납부로 인해 소득격차가 줄어들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Table 3> 하단 참조). 즉, 정책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추세는 경상소득 기준으로 본 두 지표

[Table 4] Contribution of 1-2 persons Family to Income Quintile Share Ratio

Year	Current Income			Disposable Income		
	Contribution of 2-persons Family {(B)-(A)}/(B)×100	Contribution of 1-persons Family {(C)-(B)}/(C)×100		Contribution of 2-persons Family {(B)-(A)}/(B)×100	Contribution of 1-persons Family {(C)-(B)}/(C)×100	
		Method 1	Method 2		Method 1	Method 2
1990	7.51	N.A.		8.36	N.A.	
1995	12.86					
2000	18.10					
2005	34.21					
2006	35.16			42.56		
2007	36.77	46.05	89.10	41.99	51.00	96.29
2008	37.03	55.24	103.87	43.30	59.83	113.39
2009	40.70	66.45	125.95	48.57	75.49	139.86
2010	40.87	69.79	138.64	46.15	82.44	161.99
2011	44.84	69.75	138.93	51.23	77.60	154.87
2012	46.20	73.46	150.25	50.96	75.78	157.39
2013	50.88	77.15	162.98	54.85	81.45	171.02
2014	45.79	84.62	182.89	46.46	84.77	185.11

N.A. denotes Not Available.

의 추세와 동일하였다.

이제 소득5분위배율에 대한 1-2인 가구의 기여도를 논의해본다(<Table 4> 참조). 첫째, 경상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2인 가구의 기여도에 따르면, 2인 가구가 소득 5분위배율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인 가구는 방법 1에 의한 기여도가 2인 가구의 기여도에 비하여 더 큰 것으로 나타나 1인 가구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처분소득 기준 5분위배율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가구의 기여도가 2인 가구의 기여도에 비하여 연도가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2인 이상 가구의 5분위배율에 1인 가구를 추가하여 구한 기여 역시 전반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소득 기준 수치보다 약간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가처분소득 기준 두 지표에 대한 1-2인 가구의 기여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결론: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1990년부터 2014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불평등도의 추이를 살펴보고, 1인 및 2인 가구 구성비의 변화와 1-2인 가구들이 전체 소득불평등도와 소득5분위배율에 미치는 효과를 기여도 개념을 새로이 규정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해보았다.

분석결과들을 요약해보면, 첫째 경상소득 기준 2인 이상 가구 기준 지니계수는 1990-93년은 하락 추세 이후

점증하다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고, 2000년 하락한 이후 2008년까지 계속 증가한 다음 다시 하락 추세로 반전되었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측정된 소득불평등도는 경상소득 기준 추세와 약간 다르게 나타나 2009년 이후에 연도별로 엇갈리게 나타났다.

둘째,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2인 가구의 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점차 증대되고, 2003년 이후부터 그 기여도 수준이 10%를 초과하고 있고, 1인 가구의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1-2인 가구가 계속 증가할 경우, 전체 소득분배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셋째, 1인 및 2인 가구를 포함한 소득 5분위 배율은 2000년 이후 증가하였는데, 이는 1인 및 2인 가구 중 최하위 1~2분위에 속한 가구의 소득점유율이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1-2인 가구의 소득5분위 배율에 대한 기여도 역시 2006년 이후 매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1-2인 가구 중 1인 가구의 기여도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여기서 대부분의 1-2인 가구들이 저소득상태에 계속 처해있다면 전체 가구 기준 소득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한편, 통계청 예측에 따르면, 1-2인 가구의 분화가 심화될 것이 분명한 바 1-2인 가구에 대한 추적 연구를 통해 악화되고 있는 소득불평등도와 소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할 시점이 바로 지금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향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실증할 수 있는 연구를 기대해본다[16].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4S1A3A2044456).

REFERENCES

[1] M. A. Martin, "Family Structure and Income Inequality in Families with Children, 1976 to 2000" *Demography* 43(3): 421-445, 2006.

[2] D. S. Massey, *Categorically Unequal: The American Stratification System* New York: Russell Sage Found, 2007.

[3] B. Western, D. Bloome, and C. Percheski, "Inequality among American Families with Children, 1975 to 2005"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3(6): 903-920, 2008.

[4] A. Brandolini and G. D'Alessio, "Household Structure and Income Inequality" *Working paper series: Luxembourg Income Study* 254: 1-49, 2001.

[5] A. Piechl, N. Pestel, and H. Schneider, "Does Size Matter? The Impact of Changes in Household Structure on Income Distribution in German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8(1): 118-141, 2012.

[6] G. Burtless, "Effects of Growing Wage Disparities and Changing Family Composition on the US Income Distribu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43(4): 853-865, 1999.

[7] Jung-ho Ban, "The Effects of Household Composition Variety on Income Inequality", *Social Welfare Policy* 38(1): 85-111, 2011.

[8] Moonkil Kim, "Population Structure Change and Income Inequality, Its Policy Implications", *Health · Welfare Issue & Focus* 214, 2013.

[9] Myung Jae Sung, Ki-baeg Park, "Effects of Demographic Changes on Income Inequality in Korea", *KYONG JE HAK YON GU* 57(4), 5-37, 2009.

[10] Jin Kwon Hyun and Byung In Lim,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Inequality Decomposition By Factor

Componen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2), 95-114, 2000.

[11] Jin Kwon Hyun and Byung In Lim, "Redistributive Effect of Korea's Income Tax and Equity Decomposition", *Review of Fiscal Studies*, 9(2), 2003.7

[12] Byung In Lim, "The Redistributive Effect of the Income Tax and the Social Security Systems: Comparison of Korea with U.S.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2), 99-126,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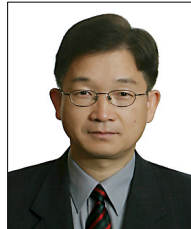
[13] Byung In Lim, "A Study on the Redistributive Effect of the Income Using the Disaggregation of the Gini Coefficient by Factor Componen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1(2), 37-64, 2006.

[14] Ji Un Jung, Byung In Lim, and Hu-Hyun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1 or 2-membered Household on Total Income Inequalit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7(2), pp. 71-90, 2014.

[15] G. Bellu, and P. Liberati, *Decomposition of Income Inequality by Subgroups. Policy Impacts on Inequality*, 2006.

[16] Wol-Suk Kang and Hae-Sool Yang, "A Study on Efficient Policies of solving the Digital Divide for Weak Layers in the Smart Phone Convergence Er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1), pp. 29-38, 2012.

임 병 인(Lim, Byung In)



- 2000년 2월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박사)
- 2007년 9월 ~ 현재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재정학, 보험경제학
- E-Mail : billforest@hanmail.net

김 성 태(Kim, Sung Tai)



- 1987년 6월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경제학박사)
- 1989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조세, 재정정책, 이동성, R&D, 불평등
- E-Mail : stkim@cju.ac.kr

정 지 운(Jung, Ji Un)



- 2013년 8월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박사)
- 2015년 6월 ~ 현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래인재·자격연구본부 부연구위원
- 관심분야 : 빈곤, 불평등, 프로그램 평가, 국가자격
- E-Mail : jiujung@krivet.re.kr